

“불공정 관행 차단”... 공정위, 전방위 실태 조사

백화점 등 유통·대리점·하도급 등 대규모 점검 조사항목서 거래 집중도·업종서 건축자재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대리점 분야의 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전면조사에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분야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9개 업체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곳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

으로 하고,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체(본사) 및 이와 거래하는 5만여곳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유통 분야, 2018년 대리점 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서면실태조사에서는 행위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전년 대비 거래관행 개선 제감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 올해의 경우 '거래중인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체 수', '전체 거래금액 대비 상위 3개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체와의 거래금액 비중' 등 거래선 다변화 정도 및 거래 집중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또 납품업체·대리점 등 (乙) 측 사업자의 영입이익률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함께 파악해볼 예정이다.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구체적인 사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에는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된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해 건축자재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전년도 실시한 21개 업종에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해 총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8월과 9월까지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11월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 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이 명시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기준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됐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제조·유통·건설업

종의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여부,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기존 수급사업자 중심에서 원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해외 중재지 설정 계약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등도 새롭게 조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하고 매출액과 거래금액을 직접 입력 방식으로 조사해 통계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환경의 날 맞아 기후행동 확산 동참’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5일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과 환경교육 박람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기후행동 확산에 동참했다.

139개 시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정부, 적발 후 시정 안 되면 벌점 부과·노동자 배정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다음 달 8일까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올해 기준 139개)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가 배정된 모든 시·군이 스스로 인권 실태를 점검하는 '전체 시·군 자체 점검'과 '외국인 노동자 전담 인력 부족 시·군(15개) 대상의 부처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일선 부족 시·군의 기준은 담당 직원 1명이 돌봐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국 평균(283명) 대비 두 배를 웃도는 곳을 의미한다. 시군 자체 점검은 시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에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의무 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윤열 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 조치 등을 했는지 점검한다.

주요 항목은 인권 보호 등 관련 의무 교육 시행·이수, 근로 계약 준수, 의무 보험 가입, 적법 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에 한 달 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그다음 해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 노동부 등의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을 통해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경총, 기업 인재 육성 기반 강화 ‘눈길’

관리자·재직청년·구직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

광주경총총협회(회장 양진석)가 관리자·재직청년·구직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전자부품 산업의 청년 인재 육성과 조직 적응 지원에 성과를 거두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경총은 지역 내 자동차·전자부품 산업군 기업의 관리자 및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당초 목표인원 300명 대비 350명이 조기 신청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참여자들은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세대 간 이해 증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 광주경총은 최근 3년 이내 입사한 신입 재직청년을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 직무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조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입 청년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조기 이직을 예방하는 등 기업 인력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동차·전자부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산업 이해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리더십, 비즈니스 매너, 의사소통 역량 향상 등 공통교육은 물론 산업별 직무교육과 기업 현장자

멘토링을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지 종사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직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경총은 이 같은 사업 참여 열기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6월 중 신입 재직 청년 및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의 직장 적응과 경력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확대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용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신안~무안 송전망 준공...출력제어 완화 기대 한전, 전남 서남권 계통 보강...190MW 접속대기 해소

전남 무안과 신안을 연결하는 154kV 송전망이 준공되면서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계통 수용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을 연결하는 154kV 송전망(운남~신안~음동, 52km)이 준공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송전망 구축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집중된 서남권 지역의 전력 계통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급증하고 있다. 새 송전망이 가동되면 신안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다 원활하게 송전할 수 있게 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약 19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접속 대기

물량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송전망 건설 역사에서도 의미가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전체 경과지 대부분이 도서지역에 위치, 섬과 섬을 22차례 횡단했으며, 일부 구간은 섬 사이 거리가 최대 2km에 달했다. 특히 최고 높이 263m의 철탑이 설치돼 국내 송전철탑 가운데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했다. 한전은 공사 과정에서 철탑 조립 전용 크레인을 개발하고 특수전선을 적용해 철탑 높이를 최소화했으며 친환경 진입로부선 공법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과 신공법을 활용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장기간의 공사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